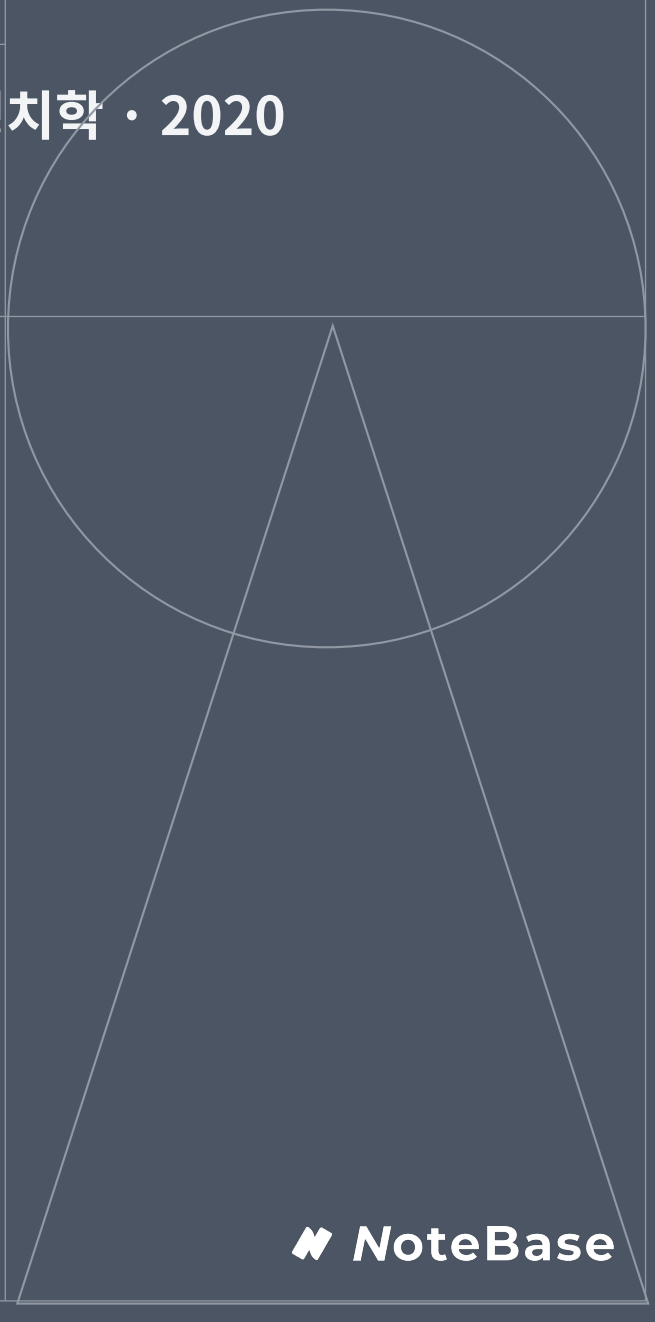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0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0

문 1. 국제정치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주의는 국가이익을 국제적 행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본다.

② 자유주의는 권력투쟁의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자유주의는 국제질서를 본래 경쟁이 없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로 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국제질서와 국가행위를 어떻게 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힘과 국가이익이 지배하는 경쟁의 장으로 보는 이론이다. 결정 차이축: 국제질서의 기본 성격을 경쟁과 권력정치로 보는가이다. 키워드: 국가이익, 힘, 세력균형.
자유주의: 국제정치에서도 제도, 상호의존, 규범을 통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결정 차이축: 무정부 상태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인정하는가이다. 키워드: 협력, 국제기구, 상호의존.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현실주의는 국가를 핵심 행위자로 보고 국가이익과 생존을 최우선 기준으로 본다. 국제적 행위의 기본 원리를 국가이익에서 찾는 설명이므로 맞다.

② O
자유주의는 국제정치에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제도와 규범, 상호의존을 통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권력투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력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맞다.

③ O
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이 어느 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를 막아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질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세력균형을 전쟁 억지의 장치로 본 설명이므로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국제질서를 본래 경쟁이 없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상태로 본다"는 표현이다. 자유주의는 국제질서를 선천적으로 무경쟁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무정부적 국제환경에서도 제도와 규범, 상호의존을 통해 협력과 질서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자유주의를 이상주의와 혼동하면 ④처럼 국제질서를 애초에 갈등이 없는 상태로 본다고 오해하기 쉽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갈등의 부정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실주의가 나오면 국가이익, 힘, 안보, 세력균형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자유주의가 나오면 국제기구, 규범, 상호의존, 협력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갈등이 아예 없다"처럼 국제정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단정하는 표현은 경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현실주의는 경쟁과 힘의 정치, 자유주의는 갈등 속 협력 가능성이다.

NoteBase

문 2.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이 언급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의미하는 것은?

①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위기

② 국가 경제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군사적 해외원정으로 인한 위기

③ 패권 확보를 위한 군사적 충돌

④ 국제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의 문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그레이엄 앨리슨이 정리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다른 국제정치 개념들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 그레이엄 앨리슨: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현대 국제정치에 적용해, 부상하는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을 위협할 때 구조적 긴장과 전쟁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한 학자이다.
- 투키디데스의 함정: 패권국과 부상국의 힘의 전이가 군사적 충돌 위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 제국의 과잉팽창: 국가의 경제력 한계를 넘는 군사적 팽창으로 쇠퇴를 부르는 현상을 뜻한다.
- 무임승차 문제: 국제 공공재를 함께 누르면서도 비용 부담은 회피하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위기는 국제금융 불안이나 세계경제 위기에 관한 설명이지, 부상국과 패권국의 힘의 전이에서 생기는 전쟁 위험을 뜻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과는 다르다.
틀린 표현은 "금융시스템의 위기"이다. 올바르게는 "기존 패권국과 부상국 사이의 구조적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라고 고쳐야 한다.

② X
국가 경제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군사적 해외원정으로 인한 위기는 제국의 과잉팽창을 가리키는 설명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대외원정의 과다 자체보다 세력전이에서 발생하는 충돌 위험에 초점이 있다.
틀린 표현은 "국가 경제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군사적 해외원정"이다. 올바르게는 "부상국이 기존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할 때 나타나는 구조적 긴장"이라고 고쳐야 한다.

③ O
패권 확보를 위한 군사적 충돌이라는 표현은 다소 압축적이지만, 이 문항에서는 기존 패권국과 부상국의 세력전이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핵심은 패권 경쟁이 구조적 전쟁 위험을 높인다는 점이다.

④ X
국제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의 문제는 집단행동론이나 공공재 이론의 주제이다. 이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설명하는 패권전이와 전쟁 위험의 문제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국제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의 문제"이다. 올바르게는 "패권국과 부상국 사이의 세력전이가 낳는 충돌 위험"이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제국의 과잉팽창과 ④의 무임승차 문제는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나오는 별도 개념인데, 둘 다 갈등이나 비용 문제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섞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위기"나 "문제"라는 포괄적 표현에 끌려가지 말고, 세력전이와 패권경쟁이라는 핵심 축을 잡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나오면 먼저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가"를 본다. 부상국과 기존 패권국의 관계, 세력전이, 전쟁 위험이 함께 나오면 정답 방향이다. 반대로 금융위기, 과잉팽창, 공공재 무임승차가 나오면 다른 개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투키디데스의 함정 = 부상국 대 기존 패권국의 세력전이 = 군사적 충돌 위험이다.

NoteBase

문 3.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①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

②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

③ 1997년 교토의정서

④ 2009년 코펜하겐협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주요 연도와 회의·협정의 성격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우 지구정상회의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로서 기후변화협약 채택의 계기와 연결된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 의정서이다.
코펜하겐협정은 2009년 COP15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관련 정치적 합의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 체제의 다자무역협상으로서 무역자유화와 WTO 출범으로 이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다. 리우 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으므로 발문의 '관련된 것이 아닌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판단은 이 선지를 정답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기후변화와 직접 관련된 회의이다.

② O
우루과이라운드는 1991년 무렵 진행된 GATT 다자무역협상으로, 핵심 의제는 무역자유화와 국제통상질서 재편이다. 기후변화 체제 형성과 직접 연결되는 회의나 협정이 아니므로 발문에 맞는 정답이다.

③ X
1997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구체화한 대표적 기후변화 협정이다. 틀린 판단은 이 선지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의정서이다.

④ X
2009년 코펜하겐협정은 COP15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관련 합의이다. 법적 구속력 한계는 있었지만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흐름에 속한다. 틀린 판단은 이 선지를 비관련 항목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우루과이라운드와 코펜하겐협정 모두 국제회의 이름처럼 보여 같은 범주의 환경협정으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는 통상 협상이고, 리우·교토·코펜하겐은 모두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흐름에 놓인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정치 연표 문제는 먼저 의제가 환경인지 통상인지부터 구분한다. 리우-교토-코펜하겐은 기후변화 연표로 묶고, 우루과이라운드는 WTO 출범으로 이어진 통상 협상으로 분리하면 바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리우-교토-코펜하겐은 기후변화, 우루과이라운드는 통상이다.

NoteBase

문 4.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안보딜레마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 구조의 구성단위인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발하는 결과이다.

②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게 되는 상황이다.

③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가능한 군사기술이 발전할수록 안보딜레마는 높아진다.

④ 국가들은 다른 국가가 행하는 군사적 조치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안보딜레마는 더욱 증가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안보딜레마의 정의와 그것을 심화하거나 완화하는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안보딜레마는 한 국가의 방어적 안보 강화 조치가 다른 국가에는 위협으로 보이면서 상호 불신과 군비경쟁을 낳아 결과적으로 모두의 안보를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구성주의는 안보딜레마를 국제체제의 구조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기보다 국가 간 정체성·인식·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공격과 방어를 구분할 수 있을수록 상대의 의도를 오판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안보딜레마는 완화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구성주의의 관점에서"와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발"이다.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때문에 의도와 무관하게 안보딜레마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현실주의, 특히 구조현실주의의 설명에 가깝다. 구성주의는 국가의 정체성, 상호인식, 관계 맥락에 따라 안보딜레마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② O: 자신의 안보를 높이려는 군비 증강이나 방어 조치가 상대에게는 공격 준비로 해석되어 대응을 부르고, 그 결과 군비경쟁과 불신이 심해져 오히려 자신의 안보까지 악화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안보딜레마의 핵심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가능할수록 안보딜레마는 높아진다"이다. 실제로는 공격과 방어가 잘 구분될수록 상대의 군사 조치가 방어용인지 판단하기 쉬워져 안보딜레마는 낮아진다.
④ X: 틀린 부분은 "의도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이다. 안보딜레마는 다른 국가의 군사적 조치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커진다. 상대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와 오판이 줄어든다.

오답 포인트

①은 안보딜레마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을 구성주의로 바꿔 끼운 함정이고, ③은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이 높을수록 딜레마가 심해진다고 방향을 뒤집은 함정이다. ④는 안보딜레마의 원인인 의도 불확실성을 의도 명확성으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안보딜레마 문제는 먼저 "한 국가의 방어 조치가 상대의 위협 인식과 상호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가"를 본다. 이어서 의도 파악이 어려운지, 공격과 방어가 구분되는지처럼 딜레마를 키우는 조건과 줄이는 조건을 방향까지 같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안보딜레마는 방어가 위협으로 읽혀 모두의 안보가 낮아지는 현상이며, 의도 불확실성과 공격·방어 비구분성이 이를 키운다.

NoteBase

문 5. 글렌 스나이더(Glenn Snyder)가 주장하는 동맹안보딜레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맹국 간 관계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위험은 반비례한다.

② 동맹체결국은 공동의 적과 행하는 '적대적 게임'뿐만 아니라 동맹 상대 국가와의 '동맹게임'에도 직면하게 된다.

③ 동맹국 A, B 중 A국이 공동의 적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동맹게임에서 A국은 동맹 상대 B국이 초래하는 전쟁에 연루될 위험이 증가한다.

④ 다극체제에서는 양극체제보다 방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동맹안보딜레마가 더욱 심해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나이더의 동맹안보딜레마에서 연루와 방기의 반비례 관계, 동맹게임의 의미, 다극체제의 방기 위험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루는 동맹국의 분쟁에 원치 않게 끌려 들어가는 위험이다.
방기는 동맹국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이탈해 홀로 남게 되는 위험이다.
동맹 결속이 강할수록 방기 위험은 줄고 연루 위험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동맹게임은 적과의 대립만이 아니라 동맹 내부에서 공약과 부담을 조정하는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극체제는 대체 동맹 선택지가 많아 방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동맹국 간 관계가 긴밀할수록 서로를 버릴 가능성은 작아지지만 상대의 전쟁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은 커진다. 따라서 연루와 방기의 위험은 반비례한다.
② O: 스나이더는 동맹정치를 공동의 적과 벌이는 대외적 게임만으로 보지 않는다. 동맹 상대와 공약 수준, 부담 분담, 전략 노선을 조정하는 동맹게임도 함께 본다.
③ X: 틀린 표현은 '연루될 위험이 증가한다'이다. A국이 공동의 적에게 유화적으로 접근하면 B국의 강경 노선에 휘말릴 연루 위험은 오히려 낮아진다. 이 경우 커지기 쉬운 것은 B국이 A국의 공약을 의심하면서 생기는 방기 위험이다. 올바르게는 'A국이 공동의 적에 대해 유화적일수록 연루 위험은 감소하고 방기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이다.
④ O: 다극체제에서는 선택 가능한 동맹 조합이 많고 재편 가능성도 커서 양극체제보다 방기 우려가 커진다. 그래서 동맹안보딜레마가 더 심해질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유화적 태도'를 보면 곧바로 상대에게 끌려 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스나이더의 틀에서는 유화는 연루보다 방기 문제와 더 가깝고, 연루는 지나치게 강한 결속이나 무조건적 지원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맹 문제는 먼저 연루와 방기 중 어느 위험을 묻는지 가른다. 동맹이 가까워질수록 연루가 커지고 방기는 줄어들며, 대체 동맹이 많은 다극체제일수록 방기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강한 동맹은 연루를 키우고, 느슨한 동맹과 다극체제는 방기를 키운다.

NoteBase

문 6. 브레턴우즈 체제의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면 국제유동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② 국제적으로는 국제금융에 대한 통제와 무역자유화를 추구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케인즈주의적 총수요 관리를 추구하였다.

③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경제의 확장에 따라 충분한 양의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 주어야 하는,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에 처하게 되었다.

④ IMF, GATT, IBRD라는 세 가지 제도가 이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브레턴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 달러 중심 유동성 공급, 내재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브레턴우즈 체제는 달러를 금과 연결한 금환본위 아래 각국이 달러에 고정환율을 유지한 전후 국제경제질서이다.
국제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면서도 국제금융과 자본이동은 일정하게 관리하려 했고, 국내적으로는 케인즈주의적 총수요 관리와 완전고용 정책을 허용하였다.
트리핀의 딜레마는 달러의 신뢰를 지키려면 미국의 대외적자가 과도하면 안 되지만, 세계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미국의 달러 유출이 필요하다는 긴장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면 국제유동성이 감소한다"는 표현이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의 적자가 해외로 달러를 공급하는 통로였으므로 국제유동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올바르게는 "미국의 적자는 국제유동성을 공급하지만 달러 가치와 금 태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이다.
② O: 브레턴우즈 질서는 국제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면서 국제금융과 자본이동은 일정하게 통제한 체제였다. 국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케인즈주의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내재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가진다.
③ O: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려면 세계경제 팽창에 맞게 충분한 달러를 공급해야 하지만, 달러 공급이 늘수록 달러의 금 태환 신뢰는 약해질 수 있었다. 이 모순이 트리핀의 딜레마이다.
④ O: IMF, GATT, IBRD는 전후 브레턴우즈 질서를 떠받친 대표적 제도들이다. IMF는 환율과 국제수지 안정, GATT는 무역자유화, IBRD는 전후 복구와 개발금융을 담당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적자"라는 단어만 보고 부정적으로 읽으면 쉽게 속는다. 이 체제에서는 미국 적자가 곧 해외 달러 공급이라는 점을 놓치면 유동성 방향을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브레턴우즈 관련 선지는 먼저 고정환율제와 달러-금 연결을 떠올린 뒤, 미국 적자가 달러를 해외에 푸는지 거둬들이는지 방향을 먼저 본다. 이어서 국제적으로는 무역자유화와 금융관리의 병행, 국내적으로는 케인즈주의 수요관리 허용이라는 구조를 대입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브레턴우즈는 "무역은 자유화, 금융은 관리, 국내는 케인즈, 달러 적자는 유동성 공급"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7. 에너지 관련 대표적 국제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OPEC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거대 석유회사들이 국제석유시장을 지배했다.

② OPEC은 아랍-이스라엘 전쟁(1973년)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 등 서방국들에 대해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

③ OPEC의 영향력은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원유의 특성으로 가격이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기인했다.

④ 2000년대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자 OPEC 내의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경쟁해 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OPEC의 형성 배경, 1973년 석유위기, 카르텔 영향력의 경제적 조건, OPEC와 러시아의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OPEC은 산유국들이 생산과 가격에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카르텔이다. 이 힘은 원유의 대체재가 적고 단기 수요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이라는 점에서 커진다. 러시아는 OPEC 회원국이 아니라 OPEC+를 통해 협력하는 외부 산유국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OPEC 출범 이전 국제 석유시장은 미국·유럽계 거대 석유회사들, 이른바 세븐 시스터즈가 생산·유통·가격을 좌우했다.
2번 O: 1973년 4차 중동전쟁 뒤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한 미국 등 서방에 대해 금수와 감산을 단행했다. 엄밀히는 아랍 산유국의 역할이 중심이었지만, 1차 석유파동과 OPEC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설명하는 진술로는 맞다.
3번 O: 원유는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고 수요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이어서 OPEC의 감산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쉬웠다. 선지의 핵심은 대체재 부족과 비탄력적 수요가 카르텔 힘의 배경이라는 점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OPEC 내의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경쟁"이라는 표현이다. 러시아는 OPEC 회원국이 아니므로 OPEC 내부 주도권 경쟁의 상대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00년대 이후에도 OPEC의 핵심 산유국이었고, 러시아와는 OPEC 바깥에서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다가 OPEC+를 통해 공조해 왔다.

오답 포인트

"산유국 경쟁"이라는 표현만 보고 러시아를 OPEC 내부 행위자로 착각하면 틀린다. 이 문제는 러시아가 OPEC 회원국인지, 사우디가 OPEC의 핵심 영향력을 유지해 왔는지를 함께 구분하는 문항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OPEC 관련 선지는 먼저 회원국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1973년 석유위기와 카르텔의 경제적 조건인 대체재 부족·비탄력적 수요를 연결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OPEC은 산유국 카르텔,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심 회원국, 러시아는 OPEC 밖 협력국이다.

NoteBase

문 8. 국제정치학 이론 중 하나인 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체제의 구조를 물질적 구조가 배제된 관념적 구조만으로 본다.

② 정체성, 문화와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도 특정한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③ 객관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합리주의 가정을 거부하고 행위자가 실체를 규정짓는다고 가정한다.

④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정치이론에서 구성주의가 국제체제와 행위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다른 이론과 구별해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의 핵심을 물질적 힘 그 자체보다 그 힘에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 정체성, 규범, 문화의 상호구성에서 찾는 이론이다.
현실주의가 무정부성과 힘의 분포를 보다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제약으로 보는 데 비해, 구성주의는 무정부성조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공유된 관념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물질적 구조가 배제된"이다.
- 구성주의는 국제체제를 관념적 구조만으로 보지 않는다. 물질적 조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물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 올바르게는 "국제체제는 물질적 요소와 관념적 요소가 함께 작동하며, 구성주의는 특히 관념적 요소의 구성 효과를 중시한다"이다.

② O
- 구성주의는 정체성, 문화, 규범 같은 비물질적 요소가 국가의 이해관계와 행동을 형성한다고 본다.
- 따라서 특정한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할 때 비물질적 요소도 충분히 중요한 설명 변수가 될 수 있다.

③ O
- 이 선지는 구성주의가 합리주의처럼 행위자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현실이 미리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다.
-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의 사회적 실재가 행위자들의 인식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므로, 행위자가 실제를 규정짓는다는 설명은 구성주의의 문제의식에 부합한다.

④ O
- 구성주의의 대표 명제는 무정부성이 고정된 하나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 행위자들이 적대적으로 상호작용하면 무정부성은 갈등적 질서로,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 보다 완화된 질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구성주의가 관념을 중시한다는 점을 과장해 물질적 요소를 완전히 부정한다고 바꿔 놓은 데 있다. 구성주의는 물질 자체를 지우는 이론이 아니라, 물질의 정치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성주의 선지가 나오면 정체성, 규범, 문화, 상호주관성, 사회적 구성,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본다. 반대로 힘의 분포나 무정부성을 고정된 물질 구조로만 설명하면 현실주의 쪽 설명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구성주의는 힘 자체보다 힘의 의미를, 구조 자체보다 구조의 사회적 구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NoteBase

문 9.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먼로주의는 유럽열강의 미대륙에 대한 개입을 반대하지만, 미국의 유럽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여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의 근거가 되었다.

② 카터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건설적 관여' 정책으로 대응한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취하면서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③ 베트남전쟁 이후,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는 의회예산국을 신설하고 의회조사국을 확대개편하였다.

④ 9.11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애국주의를 대체하는 일방주의와 선제공격을 특징으로 하는 부시독트린이 생겨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국 외교정책사를 시기별 대표 노선과 연결할 수 있는지, 특히 베트남전 이후 의회의 대외정책 견제 강화와 9.11 이후 부시독트린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먼로 독트린은 유럽의 서반구 간섭을 배격하고 미국도 유럽의 내부 분쟁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분리 원칙이다.
카터 행정부의 대중정책 핵심은 1979년 미중 수교 정상화이다.
베트남전 이후 의회는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예산·조사 역량과 전쟁 통제 장치를 강화하였다.
부시독트린은 9.11 이후 선제공격과 일방주의 성향이 강화된 대외안보 전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여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의 근거가 되었다"이다. 먼로주의는 유럽의 미주 간섭을 막는 원칙이지 미국의 유럽전 개입을 정당화한 원칙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먼로주의는 유럽의 서반구 간섭을 배격하고 미국의 유럽 불개입 성향을 드러낸 원칙이다"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카터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건설적 관여' 정책으로 대응"이다. 카터 행정부의 핵심은 중국 부상 대응 전략이라기보다 1979년 미중 수교 정상화였고,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과 같은 맥락의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카터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으로 아태지역 관여를 강화하였다"이다.
3번: O. 베트남전 이후 의회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독주를 견제하려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였다. 1974년 의회예산국(CBO) 설치와 1970년 의회조사국(CRS) 확대개편은 이런 흐름을 보여 주므로 선지의 방향이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기존의 애국주의를 대체하는"이다. 부시독트린의 핵심은 9.11 이후 대테러전 속에서 선제공격과 일방주의를 강조한 데 있지, 애국주의를 다른 원리로 교체했다는 데 있지 않다. 올바르게는 "9.11 이후 선제공격과 일방주의 성향을 특징으로 하는 부시독트린이 부각되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1번은 먼로 독트린을 미국의 유럽 개입 논리로 뒤집어 놓은 선지이고, 2번과 4번은 일부 익숙한 키워드를 넣은 뒤 시대나 개념을 비틀어 놓은 선지이다. 키워드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맞다고 보면 함정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국 외교사 문제는 행정부나 독트린마다 대표 연결어를 먼저 잡으면 판단이 빨라진다. 먼로는 서반구 분리, 카터는 미중 수교 정상화, 베트남전 이후 의회는 대통령 견제 강화, 부시는 9.11 이후 선제공격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먼로=유럽의 미주 간섭 배격, 카터=미중 수교, 베트남전 후 의회=CBO·CRS 강화, 부시=9.11 이후 선제공격과 일방주의이다.

NoteBase

문 10.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찰스 틸리(Charles Tilly)는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 개념을 제시했다.

② 제임스 피어론(James Fearon)은 청중비용이론(Audience Costs Theory)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보다 국제분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③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는 선출인단이론(Selectorate Theory)을 제시하면서,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한 승리연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④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은 국가 간 협상 결과와 이를 국내에서 비준받는 과정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 요인을 설명하는 대표 학자와 이론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 존 뮬러: 결집효과 — 국제적 위기나 전쟁 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한 학자이다.
- 제임스 피어론: 청중비용이론 — 민주주의 국가는 공개적 위협 뒤 후퇴할 때 국내 정치적 비용이 커서 신호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선출인단이론 — 선출인단과 승리연합의 크기가 지도자의 생존전략과 정책유인을 바꾼다고 본다.
- 로버트 퍼트넘: 양면게임이론 — 국제협상과 국내 비준이 동시에 얽혀 협상 결과를 제약한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결집효과는 국제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를 대표적으로 제시한 학자는 존 뮬러이다. 틀린 표현은 '찰스 틸리'이다. 올바르게는 '존 뮬러는 결집효과를 제시하였다'이다. 찰스 틸리는 전쟁과 국가형성의 관계를 분석한 학자로 보는 편이 맞다.

② O: 피어론의 청중비용이론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뒤 물러설 경우 국내 유권자와 정치세력으로부터 더 큰 비용을 치른다고 본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보다 국제분쟁에서 쉽게 후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 맞다.

③ O: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선출인단이론은 정치체제별로 선출인단과 승리연합의 규모가 다르고, 그 차이가 지도자의 정책선택과 권력유지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정치체제에 따라 다양한 승리연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④ O: 퍼트넘의 양면게임이론은 국제협상 결과가 국내 비준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고, 국내정치 제약이 다시 국제협상 전략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국가 간 협상과 국내 비준 과정이 서로 관련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결집효과라는 익숙한 개념에 찰스 틸리라는 유명 학자 이름을 붙여 혼동을 유도한 선지이다. 이 문제는 이론 내용 자체보다 학자-대표 키워드의 정확한 연결을 흔드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교정책 결정이론 문제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기보다 학자명과 대표 키워드를 먼저 대응시키면 판단이 빨라진다. 결집효과는 존 뮬러, 청중비용은 피어론, 선출인단은 메스키타, 양면게임은 퍼트넘으로 연결한 뒤 선지 문장을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Mueller-결집효과, Fearon-청중비용, Mesquita-선출인단, Putnam-양면게임이다.

NoteBase

문 11.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표명한 담화가 아닌 것은?

① 아베 담화 (2015년 8월)

② 무라야마 담화 (1995년 8월)

③ 고이즈미 담화 (2005년 8월)

④ 간 나오토 담화 (2010년 8월)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본 전후 총리 담화 가운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사죄를 직접 표명한 담화와, 그 표현을 후퇴시킨 담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무라야마 담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담화이다.
고이즈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반성과 사죄 표현을 계승한 담화이다.
간 나오토 담화: 한일병합 100년에 맞춰 한국에 끼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밝힌 담화이다.
아베 담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직접적이고 새로운 사죄 표명은 약화된 담화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아베 담화(2015년 8월)는 과거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직접적 사죄를 새로 분명하게 내세운 담화는 아니었다. 따라서 '반성을 표명한 담화가 아닌 것'을 고르는 발문에는 맞는 선택지이다.

② X
무라야마 담화(1995년 8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대표적 담화이다. 틀린 표현은 이 선택지를 '반성을 표명한 담화가 아닌 것'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반성과 사죄를 분명히 표명한 담화이다.

③ X
고이즈미 담화(2005년 8월)는 전후 60주년 담화로서 무라야마 담화의 반성과 사죄 기조를 이어받았다. 틀린 표현은 이 선택지를 '반성을 표명한 담화가 아닌 것'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기존의 반성과 사죄 입장을 재확인한 담화이다.

④ X
간 나오토 담화(2010년 8월)는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밝혔다. 틀린 표현은 이 선택지를 '반성을 표명한 담화가 아닌 것'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한국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분명히 한 담화이다.

오답 포인트

모든 담화가 과거사를 언급하므로 이름과 연도만 보면 비슷해 보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무라야마·고이즈미·간 나오토는 반성·사죄를 직접 드러낸 반면, 아베는 계승 표현은 두었어도 직접 사죄의 강도가 약하다는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담화명보다 핵심 문구의 수준으로 판단한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사죄'가 직접 나오면 무라야마 계열이고, 한국 병합 100년 사과는 간 나오토이며,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만 하면서 직접 사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아베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무라야마=직접 사죄, 고이즈미=계승, 간 나오토=병합 100년 사과, 아베=직접 사죄 약화.

NoteBase

문 12. 다음 보기에서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이다.

①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②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했다.

③ 사람·평등·상생번영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

④ 이 정책의 대상국은 러시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등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대상 지역, 공식 천명 계기, 핵심 키워드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주변 4강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격상하려는 외교정책이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외교정책이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3P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는 신북방정책의 설명이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② O: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하였다.
③ X: 틀린 부분은 '평등'이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개념은 사람·평화·상생번영 공동체이며, 사람·평등·상생번영 공동체가 아니다.
④ X: 러시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등은 북방 협력권에 가까운 예시이다. 신남방정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이다.

오답 포인트

지문에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세안과 인도를 떠올려야 한다. 유라시아, 러시아, 몽골 같은 북방 키워드를 섞어 신북방정책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구성이 대표적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 문제는 대상 지역을 먼저 본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이면 신남방정책이고,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협력이면 신북방정책이다.

암기 포인트

신남방은 아세안·인도와 3P, 신북방은 러시아 중심 유라시아 협력이다.

NoteBase

문 13. 비엔나 회의(Congress of Vienna)와 유럽협조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약소국의 민족주의적 입장을 국경선 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ㄴ. 전후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륙의 러시아-프로이센과 해양의 영국이 대립하였다.
ㄷ. 비엔나 회의는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세기 초반에 열린 회의이다.
ㄹ. 영국은 해양패권을 위해 대륙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비엔나 회의와 유럽 협조체제의 핵심 원리인 정통성과 세력균형, 그리고 영국의 대륙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엔나 체제는 나폴레옹 전쟁 뒤 유럽의 질서를 복원하기 위해 정통성과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만든 보수적 국제질서이다.
민족주의는 민족의 자결과 통합을 중시하지만, 비엔나 회의는 이런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보다 억제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영국은 대륙 어느 한 나라의 패권도 막아 해양우위를 유지하려 했고, 그래서 대륙의 세력균형을 중시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틀리고 ㄴ도 틀리므로 ㄱ, 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ㄱ의 틀린 표현은 '민족주의적 입장을 국경선 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이다. 실제로는 비엔나 회의가 정통성과 강대국 합의를 우선하여 약소국의 민족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ㄴ의 틀린 표현은 '대륙의 러시아-프로이센과 해양의 영국이 대립하였다'를 단순한 구도로 일반화한 부분이다. 실제로는 비엔나 체제는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이후 프랑스까지 포함한 협조체제로 운영되었고, 질서 형성의 핵심은 단순한 해양 대 대륙의 이분법이 아니라 강대국 협조와 세력균형이었다.

② X
ㄱ이 틀리고 ㄷ은 맞으므로 ㄱ, ㄷ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ㄱ의 틀린 표현은 '민족주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민족주의보다 왕조의 정통성과 보수적 질서 회복이 우선되었다. ㄷ은 비엔나 회의가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814년부터 1815년 사이 19세기 초반에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맞다.

③ X
ㄴ이 틀리고 ㄹ은 맞으므로 ㄴ, ㄹ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은 비엔나 체제의 형성 과정을 러시아·프로이센 대 영국의 단순 대립으로 본 점이 부정확하다. 실제로는 영국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과 함께 러시아와 프로이센의 팽창을 견제한 국면은 있었지만, 전체 질서는 강대국 협조 속 세력균형 유지로 운영되었다. ㄹ은 영국이 해양패권을 유지하려면 유럽 대륙에서 어느 한 세력이 패권을 장악하지 못해야 했으므로 세력균형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맞다.

④ O
ㄷ과 ㄹ은 모두 맞다. ㄷ은 비엔나 회의의 시기와 성격을 정확히 서술하였다. ㄹ은 영국이 자신의 해양우위를 지키기 위해 대륙의 세력균형을 외교의 핵심 원리로 삼았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

오답 포인트

비엔나 체제를 '나폴레옹 이후 새 질서'라는 이유만으로 민족주의와 연결하면 ㄱ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이 체제는 민족자결을 실현한 질서가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며 보수적 질서를 복원한 체제이다. 또 ㄴ처럼 영국과 대륙세력을 해양 대 대륙의 단순 대립으로 외우면 유럽 협조체제의 본질인 강대국 협조와 세력균형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엔나 체제 문제가 나오면 먼저 기준어를 '민족주의'가 아니라 '정통성·보수주의·세력균형'에 둔다. 그다음 영국이 등장하면 대륙 직접 지배보다 유럽의 균형 유지로 해양패권을 지키려 했다는 점을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비엔나 체제는 민족주의 반영이 아니라 정통성·세력균형이고, 영국은 해양패권을 위해 대륙균형을 지지하였다.

NoteBase

문 14. 근대 이후 유럽의 역사적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뮌스터조약·오스나브뤼크조약
ㄴ. 파리조약
ㄷ. 위트레흐트조약
ㄹ. 베르사유조약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ㄷ → ㄴ → ㄱ →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 이후 유럽 국제질서의 대표 조약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ㄱ 뮌스터조약·오스나브뤼크조약 - 1648년 베스트팔렌 체제를 연 조약이다.
2. ㄷ 위트레흐트조약 - 1713년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을 마무리한 조약이다.
3. ㄴ 파리조약 - 1856년 크림전쟁 종결 뒤 유럽 협조체제를 재조정한 조약이다.
4. ㄹ 베르사유조약 -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체제를 규정한 조약이다.

왜 이 순서: 베스트팔렌이 가장 이르고, 위트레흐트가 그다음이며, 파리조약은 19세기 중엽, 베르사유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이므로 마지막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ㄴ을 ㄷ보다 앞에 두어서 틀렸다. 파리조약은 1856년이고 위트레흐트조약은 1713년이므로 올바르게는 ㄱ → ㄷ → ㄴ → ㄹ이다.

2번: O. ㄱ(1648) → ㄷ(1713) → ㄴ(1856) → ㄹ(1919)의 순서가 맞다.

3번: X. 맨 앞의 ㄴ이 틀렸다. 파리조약은 위트레흐트조약보다 훨씬 뒤의 사건이므로 올바르게는 ㄱ이 먼저 와야 한다.

4번: X. ㄷ을 맨 앞에 둔 것이 틀렸다. 위트레흐트조약보다 앞서는 것은 베스트팔렌 조약군인 ㄱ이며, 올바르게는 ㄱ → ㄷ → ㄴ → 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파리조약이라는 이름이 여러 시대에 반복되어 연도가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베르사유조약보다 앞선 19세기 조약으로 잡아야 하므로, 1713년 위트레흐트조약과 1919년 베르사유조약 사이에 놓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럽 국제정치사 순서 문제는 먼저 17세기 베스트팔렌, 18세기 위트레흐트, 19세기 유럽협조, 20세기 베르사유 체제처럼 세기 단위로 묶은 뒤 세부 연도를 대입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베스트팔렌 1648 → 위트레흐트 1713 → 파리 1856 → 베르사유 1919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적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트루먼 독트린 발표
ㄴ. 코민포름(Kominform) 창설
ㄷ.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결성
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결성
ㅁ. 마샬플랜(The Marshall Plan) 발표

① ㄱ → ㄴ → ㅁ → ㄹ → ㄷ
② ㄱ → ㅁ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ㄹ → ㅁ → ㄷ
④ ㄴ → ㄱ → ㅁ → ㄹ →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냉전 초기 국제질서 형성 과정의 주요 사건을 연도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ㄱ 트루먼 독트린 발표(1947년 3월) -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봉쇄하겠다는 대외정책을 공식화한 단계이다.
2. ㅁ 마셜플랜 발표(1947년 6월) - 봉쇄정책을 경제 원조로 구체화한 단계이다.
3. ㄴ 코민포름 창설(1947년 9월) - 소련이 공산권 정당 협조체제를 정비한 단계이다.
4. ㄹ 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1949년 4월) - 서방의 집단안보 군사동맹이 제도화된 단계이다.
5. ㄷ 바르샤바조약기구 결성(1955년 5월) - NATO에 대응하는 동구권 군사동맹이 형성된 단계이다.

왜 이 순서: 트루먼 독트린이 냉전 봉쇄정책의 출발점이고, 마셜플랜이 그 경제적 실행이며, 코민포름은 이에 대응한 공산권 조직화이고, NATO가 먼저 결성된 뒤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대응 동맹으로 뒤따른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ㄴ과 ㅁ의 선후가 틀렸다. 마셜플랜은 1947년 6월 발표이고 코민포름은 1947년 9월 창설이다. 틀린 표현은 'ㄴ→ㅁ'이고, 올바르게는 'ㅁ→ㄴ'이다.

2번: O. 트루먼 독트린(1947년 3월) → 마셜플랜(1947년 6월) → 코민포름(1947년 9월) → NATO(1949년 4월) → 바르샤바조약기구(1955년 5월)의 순서가 정확하다.

3번: X. 첫머리의 'ㄴ→ㄱ'이 틀렸다. 코민포름은 트루먼 독트린보다 늦게 등장한다. 올바르게는 'ㄱ→ㅁ→ㄴ'으로 시작해야 한다.

4번: X. 역시 'ㄴ→ㄱ'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냉전 초기에는 미국의 봉쇄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소련 측의 조직화가 전개된다. 올바르게는 'ㄱ→ㅁ→ㄴ→ㄹ→ㄷ'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1947년에 집중된 트루먼 독트린, 마셜플랜, 코민포름의 순서를 뒤섞기 쉽다. 특히 마셜플랜과 코민포름은 같은 해 사건이라 혼동되지만, 6월의 마셜플랜이 9월의 코민포름보다 앞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냉전 초기 연표 문제는 미국의 봉쇄 선언인지, 경제 원조인지, 공산권 조직화인지, 서방 군사동맹인지, 동구권 대응동맹인지의 기능을 먼저 구분하면 순서가 잡힌다. 기능상 선언 → 원조 → 공산권 정비 → 서방 군사동맹 → 동구권 대응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트루먼-마셜-코민포름-나토-바르샤바의 흐름은 선언 → 원조 → 공산권 조직 → 서방 동맹 → 동구권 대응이다.

NoteBase

문 16. 1979년 이란혁명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호메이니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면서 시작되었다.

② 독재 왕정 붕괴 후 국민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등장하여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었다.

③ 호메이니의 사망 이후 라프산자니가 이슬람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였다.

④ 이란은 시아파(Shi'a) 중심의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하여 서방과 대립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79년 이란혁명의 전개 과정과 혁명 이후 이란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1979년 이란혁명은 팔레비 왕조의 친서방 세속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공화정을 수립한 혁명이다.
핵심 구별점은 혁명의 시작 시점, 혁명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 호메이니 사후 최고지도자 승계, 그리고 반서방 성격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호메이니의 프랑스 망명 종료와 귀국은 혁명의 절정 단계이지만, 이란혁명은 그 이전부터 반왕정 시위와 대중봉기로 진행되고 있었다. 틀린 표현은 "귀국한 후,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면서 시작되었다"이다. 올바르게는 혁명은 호메이니 귀국 이전부터 전개되었고, 그의 귀국은 혁명의 시작이 아니라 정권 붕괴를 가속한 결정적 계기이다.
2번: X. 혁명 후 이란은 국민투표를 통해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확정했지만, 여성의 권익이 향상된 것은 아니다. 이슬람 율법 질서가 강화되면서 복장과 사회활동에 대한 규제가 커졌다. 틀린 표현은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었다"이다. 올바르게는 혁명 이후 여성의 법적·사회적 자유가 제약된 측면이 컸다.
3번: X. 호메이니 사망 이후 이슬람 최고지도자가 된 인물은 라프산자니가 아니라 알리 하메네이이다. 라프산자니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최고지도자는 아니었다. 틀린 표현은 "라프산자니가 이슬람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호메이니 사후 최고지도자는 하메네이가 되었다.
4번: O. 이란혁명 이후 이란은 시아파 중심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강화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강하게 대립하는 반서방 노선을 보였다. 이 선지는 혁명의 이념적 성격과 대외정책 변화를 정확히 설명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호메이니 귀국, 국민투표, 라프산자니, 하메네이처럼 익숙한 사건과 인물을 한 줄에 섞어 두면 시점과 직위를 혼동하기 쉽다. 특히 라프산자니를 최고지도자로 착각하거나, 이슬람 공화국 수립을 곧바로 여성 권익 향상으로 연결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란혁명 문제는 혁명 이전 군주제, 혁명 과정의 핵심 인물, 혁명 이후 체제 성격, 호메이니 사후 권력 승계를 순서대로 대입해 판단하면 된다. 선지에 시작 시점, 여성 지위 변화, 최고지도자 이름, 반서방 노선이 나오면 각각 사실관계를 따로 검증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란혁명은 반팔레비·친호메이니·시아파 이슬람 공화국·반서방 노선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7. 핵무기와 핵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되었고, 조약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ㄴ. '수평적 핵확산'이란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핵 보유량을 확대하거나 운반 수단을 정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ㄷ. 보스턴 프로젝트(Boston Project)의 결과로 최초로 핵무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다.
ㄹ. 스콧 세이건(Scott Sagan)은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등장이 예방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핵무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NPT의 발효와 무기한 연장, 수평적 핵확산과 수직적 핵확산의 구별, 맨해튼 프로젝트와 Scott Sagan의 핵확산 비관론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의 신규 핵무장 억제와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를 함께 다루는 조약이다. 수직적 핵확산은 기존 핵보유국 내부의 핵전력 증강과 질적 고도화이고, 수평적 핵확산은 핵보유국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Scott Sagan은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과 조직적 실수 가능성이 핵위험을 키운다고 본다.

1번

X. 1번은 ㄱ, ㄴ의 조합이다. ㄱ은 맞다. NPT는 1970년 3월 5일 발효되었고 1995년 평가연장회의에서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ㄴ은 틀리다. ㄴ은 '수평적 핵확산'을 '기존 핵보유국이 핵 보유량을 확대하거나 운반 수단을 정교화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수직적 핵확산의 정의이다. 수평적 핵확산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뜻하므로, ㄴ은 두 개념을 뒤바꾼 오류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이고 정답 조합은 ㄱ, ㄴ이 아니라 ㄱ, ㄹ이다.

2번

O. 2번은 ㄱ, ㄹ의 조합이다. ㄱ은 NPT의 발효 시점과 1995년 무기한 연장 결정을 정확히 서술했다. ㄹ도 맞다. Scott Sagan은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면 예방전쟁의 유인이 커지고, 조직적 오류나 통제 실패 때문에 중대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옳은 것만 묶은 선택지는 2번이다.

NoteBase

3번

X. 3번은 ㄴ, ㄷ의 조합이다.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ㄴ은 수평적 핵확산의 정의 자리에 수직적 핵확산의 내용을 넣은 개념 혼동 오류이다. ㄷ은 '보스턴 프로젝트'가 틀린 표현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의 개발은 보스턴 프로젝트가 아니라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올바르게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로 최초의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되었다'라고 정리한다.

4번

X. 4번은 ㄷ, ㄹ의 조합이다. 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므로 전체 조합은 틀리다. 틀린 표현은 역시 '보스턴 프로젝트'이며, 올바르게는 '맨해튼 프로젝트'이다. 이 문항은 ㄷ 하나만 잘못 읽어도 ㄹ이 맞다는 이유로 4번을 고르기 쉬운 함정을 만든다.

오답 포인트

수직적 핵확산과 수평적 핵확산을 뒤섞거나, 맨해튼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특히 ㄴ은 수직적 핵확산의 정의를 수평적 핵확산이라 바꿔 놓은 함정이고, 4번은 ㄹ이 익숙한 내용이라 ㄷ의 고유명사 오류를 놓치면 쉽게 끌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핵확산 문제는 먼저 개념어를 나눈다. 기존 보유국의 증강이면 수직적 핵확산, 보유국 수의 증가이면 수평적 핵확산이다. 그다음 조약의 날짜와 역사적 고유명사를 확인하면 조합형 선택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NPT는 1970 발효, 1995 무기한 연장이다. 수직적 핵확산은 기존 보유국의 증강, 수평적 핵확산은 보유국 수의 증가이고, 히로시마·나가사키는 맨해튼 프로젝트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18. 중국의 시기별 대외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1969년 전바오다오(珍寶島)에서 발생한 중 · 소 무력분쟁 이후 중국 지도부는 소련을 '사회ㅡ제국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미국보다 소련에 대한 위협을 더욱 강조하였다.
ㄴ. 1978년 12월 중국은 미국과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은 하나이고 타이완과 홍콩이 중국의 일부라는 상하이 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ㄷ. 장쩌민 시기 중국 지도부는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다.
ㄹ.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통해 중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ㅁ. 후진타오 시기 미 · 중은 '미 · 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를 발족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마오 후기, 개혁개방 초기,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기의 대외정책을 시기와 내용으로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969년 전바오다오 무력분쟁 이후 중국은 소련을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며 대소 견제를 강화하였다.
1978년 미·중 수교 공동성명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를 다룬 것이지 홍콩 문제를 재확인한 문서는 아니다.
장쩌민 시기 중국은 국제 군비통제 체제 참여를 확대하며 1996년 CTBT에 서명하였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출범하였고, AIIB의 제안과 설립 추진은 시진핑 1기 구상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과 ㄷ은 맞지만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은 중·소 무력분쟁 뒤 중국이 소련을 '사회제국주의'로 규정하며 미국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본 흐름을 반영한다. ㄷ은 장쩌민 시기인 1996년에 중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한 사실과 부합한다. 반면 ㄴ의 틀린 표현은 '타이완과 홍콩이 중국의 일부'이다. 1978년 12월 미·중 공동성명은 하나의 중국과 대만 문제를 다룬 것이며 홍콩을 함께 재확인한 문서가 아니다.
2번: X. ㄱ과 ㄷ은 맞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ㄹ의 틀린 표현은 '시진핑 2기 지도부는 ... AIIB 설립'이다. AIIB는 시진핑 2기 이전인 1기 시기에 제안되고 2015년에 출범한 구상이다. 올바르게는 '시진핑 1기 지도부가 AIIB 설립을 추진하였다'이다.
3번: O. ㄱ, ㄷ, ㅁ의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ㄱ은 전바오다오 충돌 이후 중국의 대소 위협 인식 전환을 정확히 짚었다. ㄷ은 장쩌민 시기 중국의 CTBT 서명 사실을 반영한다. ㅁ은 후진타오 시기 미·중이 전략경제대화를 제도화한 사실과 맞는다.
4번: X. ㄴ과 ㄹ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ㄴ은 홍콩을 1978년 미·중 공동성명 내용에 끼워 넣은 점이 틀렸고, ㄹ은 AIIB 설립 시기를 시진핑 2기로 잘못 옮긴 점이 틀렸다. 따라서 ㅁ이 맞더라도 이 조합 전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내용 자체보다 시기 연결에서 많이 흔들린다. 특히 '하나의 중국'을 대만 문제와 홍콩 문제로 한꺼번에 묶거나, AIIB를 시진핑 시대 일반으로만 기억해 1기와 2기를 구분하지 못하면 ㄴ과 ㄹ을 맞는 진술로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외교사 선지는 먼저 사건을 시기별 지도부에 배치한 뒤, 그다음 핵심 대상이 소련인지 미국인지, 대만인지 홍콩인지, 출범 시점이 어느 지도부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전바오다오 뒤에는 대소 견제, 1978 수교는 대만 문제, 장쩌민은 CTBT, 후진타오는 전략경제대화, AIIB는 시진핑 1기 구상이다.

NoteBase

문 19. 헥셔-올린-스톨퍼-새뮤얼슨(Hecksher-Ohlin-Stolper-Samuelson) 정리에 따를 때 언제나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행위자는?

① 자본가

② 노동자

③ 국내경제에서 희소 요소(scarce factor) 소유자

④ 국내경제에서 풍부한 요소(abundant factor) 소유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헥셔-올린-스톨퍼-새뮤얼슨 정리에서 자유무역의 수혜 집단과 피해 집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정리는 자유무역이 국내의 풍부한 생산요소 소유자에게는 이익을, 희소한 생산요소 소유자에게는 손해를 가져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집단은 직업명 자체가 아니라 국내경제에서 풍부한 요소를 소유한 집단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나라별 요소부존에 따라 풍부요소 소유자일 수도 있고 희소요소 소유자일 수도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본가가 언제나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 그 나라의 풍부한 요소일 때만 자본가가 자유무역의 수혜자가 된다.
틀린 표현은 "자본가"이다. 올바르게는 "자본이 국내경제의 풍부한 요소일 때의 자본가"이다.

② X
노동자도 언제나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이 풍부한 나라의 노동자는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노동이 희소한 나라의 노동자는 반대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노동자"이다. 올바르게는 "노동이 국내경제의 풍부한 요소일 때의 노동자"이다.

③ X
희소 요소 소유자는 자유무역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므로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틀린 표현은 "국내경제에서 희소 요소 소유자"이다. 올바르게는 "국내경제에서 풍부한 요소 소유자"이다.

④ O
국내경제에서 풍부한 요소 소유자는 자유무역으로 해당 요소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므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문항의 "언제나"에 부합하는 집단은 풍부요소 소유자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자본가와 노동자를 절대적 집단으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이 이론은 직업명이 아니라 각 국가에서 어느 생산요소가 풍부한지와 희소한지를 기준으로 정치적 선호를 설명한다. ③은 희소요소와 풍부요소의 이해관계를 뒤집는 전형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유무역 문제에서 먼저 그 나라의 풍부요소와 희소요소를 나눈다. 그다음 풍부요소 소유자는 자유무역 찬성, 희소요소 소유자는 보호무역 선호로 연결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자유무역은 풍부요소에 우호적이고 희소요소에 불리하다.

NoteBase

문 20.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승만은 통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휴전에 반대하였다.
ㄴ.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했다.
ㄷ.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식 발효됨으로써 한·미 동맹의 근간이 형성됐다.
ㄹ.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나토(NATO)의 역할을 강화했다.
ㅁ.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휴전협상이 오래 지연됐다.

① ㄱ, ㄴ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국전쟁의 발발 승인 과정, 휴전협상 쟁점, 전후 한미동맹과 NATO 강화라는 기본 사실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이승만의 휴전 반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북진통일론에 따른 통일 구상과 연결된다.
스탈린의 남침 승인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에 체결되고 1954년에 발효되어 한미동맹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봉쇄정책과 재무장을 가속화해 NATO의 군사적 역할 강화로 이어졌다.
휴전협상 장기화의 최대 쟁점은 포로의 강제송환 여부를 둘러싼 포로교환 문제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과 ㄴ은 모두 옳지만, ㄷ·ㄹ·ㅁ도 모두 옳다는 점을 빠뜨려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 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2번: X. ㄴ·ㄹ·ㅁ은 옳지만, ㄱ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때문에 옳고 ㄷ도 1954년 조약 발효로 옳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 ㅁ이다.
3번: X. ㄱ·ㄷ·ㄹ·ㅁ은 옳지만, ㄴ도 스탈린이 마오쩌둥의 동의를 조건으로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옳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ㄷ, ㄹ, ㅁ이다.
4번: O. ㄱ은 이승만이 휴전보다 북진통일을 우선했음을 묻는 진술이고, ㄴ은 스탈린의 조건부 승인 과정을 묻는 진술이며, ㄷ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형성되었다는 진술이고, 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NATO의 재무장과 역할 강화를 추진했다는 진술이며, ㅁ은 포로교환 문제가 휴전협상의 핵심 장애였다는 진술이므로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조약 체결과 발효 시점을 혼동하거나, 이승만의 휴전 반대를 단순한 강경성으로만 이해하면 ㄱ과 ㄷ을 놓치기 쉽다. 또 휴전 지연 요인을 전선 교착만으로 기억하면 실제 핵심 쟁점이었던 포로송환 문제를 빼먹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국전쟁 관련 조합형 문제는 발발 승인 주체, 휴전 지연 쟁점, 전후 동맹 변화라는 세 축으로 나누어 각 문장을 개별 판정한 뒤 마지막에 조합을 맞추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조건부 승인,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포로송환 쟁점,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NATO 강화로 연결된다.

NoteBase